

장성군, 사계절 내내 전통문화 향연 펼친다

4월 남도국악제·5월 꽃길축제
인문학 강의·선비문화 체험
상시 전시·광장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사업 추진

장성군이 최근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한다. 전통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관광객 모시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월에는 한국국악협회와 전라남도지회가 주관하는 '제44회 남도국악제'가 장성홍길동체육관에서 열린다. 첫날에는 고수, 남도민요, 판소리, 무용 부문 경연을 벌이고 이튿날에는 농악 경연이 펼쳐진다. 흥겨운 축하 공연도 준비된다.

5월의 주인공은 장성 황룡강 불꽃이다. 홍길동무꽃길축제가 5월 19-21일 3일간 개최된다. 군은 축제기간 이후에도 28일까지 나들이객 맞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축제 세부 일정은 수립 중이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다양한 문화예술이벤트도 주목된다. 장성군은 올해 총 4건의 문화재정 공모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천연고찰 백양사에서 건축문화재 소통한마당, 문화재 탐험학교, 사찰 천연기념물 감성도감, 산사 인문학 강의를 열릴 예정이다. 전통산사 문화재 신규 사업으로, 올해가 시행 첫해다.

지난 가을 인기를 끌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명품국악공연도 다시 관객과 만난다. 필암서원 체험축제, 전통공연, 인문학 강연 등 불거리, 즐길거리가 한층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향교와 봉암서원에서는 선비문화 체험여행을 준비했다. 1박2일 인문학 탐방 코스와 선비풍류공연,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등을 통해 장성의 선비문화를 몸소 느껴볼 수 있다.

서능정려비, 기영정, 관수정을 무대로 1박2일 문화재 탐방과 가온 쓰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시 공연 및 전시도 관심을 끈다.

장성군은 장성역 광장에서 클래식, 가요,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과 문화예술 체험, 예술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성역 앞 홍길동테마역과 황룡강 힐링허브정원에서 유명 작가 초대전과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테마 전시회가 열린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힘을 지녔다"면서 "문화재를



장성군이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 모습. <장성군 제공>

비롯해 거리마다, 우리 삶의 모든 공간에 문화예술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발굴·추진 및

지원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대상포진·폐렴구균 예방접종 담양군, 만50세 이상 지원

담양군이 주민들의 향촌복지 실현을 위해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해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접종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군민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예진 후 접종을 받으면 된다.

또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는 23가 다당질백신(PPSV23) 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지소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담양군보건소 관계자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감염증 및 대상포진 발병 예방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접종을 바란다"며 "어르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해 고향에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나주시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이 지켜드려요"

한부모 가정 등에 CCTV·비상벨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



나주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철통 보안 장치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스토킹, 주거 침입, 폭력·도난 등 여성 취약 범죄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안심홈 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관 CCTV' (도어가드), 'SOS비상벨'로 구성된 안심홈 세트 설치 및 임대비용을 1년 간 무상 지원한다.

안심홈(사진)은 주택 현관 앞 실시간 영상 확인, 배회자 감지 및 알람, 양방향 대화, 가족·지인과 위치 공유 등 기능을 갖췄으며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24시간 보안업체 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여성 1인 가구와 법정 한부모 모자 가정 등 총 50가구로 인터넷·와이파이(Wifi)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온 신청 서류를 작성,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스토킹·주거침입 피해 여성, 우범지역, 사각지대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나주시 관내 1인 가구는 1만9171명이며 이중 52.3%(1만299명)가 여성 1인가구로 직전년도 대비 5.4%가 증가하는 등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이번 안심홈 세트 지원에 앞서 다중이용시설인 공공화장실 56곳에 위급상황 시 벨을 누르면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리는 시스템인 여성안심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안심홈 사업을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 전력에 있는 피해 여성들의 2차 피해 예방과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시책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강진 목은지·쌀귀리 일본 갈까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수출 가능성·방향성 논의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품목인 목은지와 쌀귀리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일본에서 한국식자재 상설판매장(YES MART)을 운영하는 (주)EISAN의 김현태 한국지사장과 (주)마루 박민수 대표, 농업기술원 장선환 수출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 강진 목은지와 쌀귀리의 일본 수출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관내 업체는 (주)다산명가, (주)발효담다, 개

풍이네농장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목은지와 쌀귀리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출 희망 농식품가 공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마케팅 사업과 온라인 유향성 판매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판로 확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축산업 649억 투입...고부가가치 시책 추진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동물복지형 환경 조성 등

함평군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49억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고부가가치 시책을 추진한다.

함평군의 주요 축종인 소(한·육우, 젖소) 사육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만4000여 마리이며, 이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 5위권에 달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함평의 주요 가축(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1496농가)의 수입은 9902억원으로 경영비를 제외한 농가당 연평균 소득액은 약 1억20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 임근군로자 월평군소득 327만 1000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함평군이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다.

함평군은 축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와 농가 맞춤형 축산경영력 강화 사업 등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지향적 축산업을 육성한다.

또 축사악취 저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등 친환경

경 축산환경 조성에 집중하는 한편 방역인프라 설치,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기초전염병 제로화를 추진한다.

함평전지한우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축산농가 육성은 물론 국산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한우 육성에도 매진한다.

함평군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축산과'를 '축산과로 개편했다.

김환동 함평군 축산과장은 "단일 부서인 축산과로 조직이 개편된 만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육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지원

생산비·인증비...보조사업 우선 대상자 선정 혜택 부여

화순군이 친환경 축산물 인증으로 농장 내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구조에 나섰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전문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친환경축산물(유기·무항생제)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증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있다. 현재 화순군내 친환경축산물 생산 농장은 69곳,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4곳이 인증됐다.

인증기준은 축종별로 다르지만 공통적인 평가 항목으로 사육환경, 급여·급수, 가축의 입식과 출하, 사료 영양관리, 동물복지,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이 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비용과 가축 출하 장려금, 녹색축산농장·유기축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화순군은 축산농가의 환경 친화형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전남도 지원을 받아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축산관련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혜택도 부여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건강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함평 월야보건지소 17일까지

함평군보건소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월야보건지소가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나산·해보·월야면 주민이며, 오는 1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필라테스, 영양교실, 한의약 국학 기공체조교실, 장애인 주간재활교실, 치매예방교실 등 7개다.

이와 함께 영양관리, 비만 및 금연상담, 치매검사 등 각종 상담실도 함께 운영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말까지다. 월야보건지소는 지난해 12월 월야면 달맞이 문화센터 부지 내에 이전 신축했으며, 양·한방 진료는 물론 금연, 치매예방검사, 영양 등 각종 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농식품 스타트업 가공전문가 양성

가공기술 등 현장 중심 교육...21~24일 수강생 모집

장성군이 농식품 스타트업 가공전문가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사진> 지역 내 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해 대표자로부터 직접 가공 기술을 익히고 장비 운용 방법을 배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로, 다음달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12회 진행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장성 대표 과일인 사과, 감, 복숭아를 이용한 대량 저장 기술 습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근채류 장아찌 제조 노하우와 열매과채류 퓨레 제조법, 냉동 저장법, 콩알매주 속성장류 제조방법도 전수받을 수 있다.

군은 교육 이수자 가운데 가공식품 관련 창업

을 희망하는 교육생에게 추후 다양한 제품 생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인 공유주방 '위드락'도 준비돼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함께 농산물 가공창업 분야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산물을 대량 취급하는 가공식품 생산 인력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 만족도 높은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스타트업 가공전문가 과정이 가공 기술력 배양과 농산물 가공 분야 창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